

통도사 용화전 벽화의 제작시기 및 제작자 연구

박세진*

- I. 머리말
- II. 용화전 벽화의 현황
- III. 용화전 벽화의 제작시기
- IV. 용화전 벽화의 제작자
- V. 맺음말

I. 머리말

통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로서 50여 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上爐殿, 中爐殿, 下爐殿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독특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이 많은 전각들은 다양한 벽화가 현존하고 있으나 현재 통도사 영산전 벽화만이 보물 제171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을 뿐이며, 18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 약사전 등의 건물의 내부 벽화들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에도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통도사 용화전은 통도사 중로전에 위치하며 공포의 구성이 외부는 2출목이지만 내부는 2단으로 천장높이까지 5출목의 공포를 짜 올려 동일한 규모의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은 포벽이 생긴 특이한 구조이다. 이는 많은 포벽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건물 내부를 더욱 화려하게 장엄하는 효과

* 통도사성보박물관

를 가진다. 또 용화전 내부에는 동·서측벽에 〈西遊記圖〉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¹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18세기 사찰벽화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용화전과 관련된 기록으로 1369년 초창과 1725년 중창에 대해 『佛宗刹略史』, 『各法堂初重創記念』에 간략한 기록만 남아있어 현재 건물의 제작시기와 제작자에 대해서 밝혀진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외부벽화는 19세기 후반, 내부벽화는 〈용화전 미륵불도〉(1798)와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통도사에는 1756년에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큰 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로 인하여 법당 4곳이 전소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대광명전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용화전의 연혁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1756년 증로전 화재와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하여 통도사 내부 또는 인근에서 조성된 벽화와 불교회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용화전 벽화의 조성 시기와 화원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여 통도사 용화전 벽화가 통도사 및 한국 사찰벽화에서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용화전 벽화의 현황



도 1 통도사 용화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4호
(필자촬영)

용화전은 통도사 증로전에 위치한 건물로 북쪽으로 대광명전과 남쪽으로 관음전 사이 자오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² 용화전은 남향의 건물로 면석과 갑석을 갖춘 가구식 단층기단 위에 세워졌다. 맞배지붕의 다포식 건물로 외부는 2층목이지만 내부의 공포는 2단으로 천장까지 5층목의 공포를 짜올렸다. 이는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내부 포벽이 상·하 2단

- 1 최근 통도사 용화전 〈서유기도〉벽화의 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세진, 「통도사 용화전 벽화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洪性楚, 「朝鮮時代《西遊記》의 傳播와 影響 연구—文獻記錄과 “西遊記圖”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6집 (2013); 최민아, 「통도사 龍華殿의〈西遊記圖〉연구」, 『문물연구』 제28호 (2015).
- 2 현재 통도사 용화전 건물 안에는 약 2미터 정도의 미륵불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미륵불상의 후불벽에는 1798년 玉印이 수화사로 참여한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되고 후불벽에는 모사도가 봉안되었다.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상 같은 크기의 다른 건물에 비하여 더 많은 포벽이 생기게 되어 법당 내부가 더욱 화려하게 장엄되었다(도 1). 용화전 전각의 외부벽화 20점, 내부벽화 39점이 현존하고 있으며, 내부 창방 및 평방, 보랑 등 별지화가 12점으로 정면3칸, 측면3칸으로 이루어진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수량의 벽화가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벽화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외부벽화와 내부벽화를 나누어 분포 현황과 도상을 살펴보겠다.

1. 외부벽화

용화전 동측면 외벽의 향좌측 부터 <金剛力士圖>, <虎鵠圖>, <劉海戲蚩嶺圖>가 그려졌다. 동측면 벽은 풍판 뿐 아니라 천자각과 붙어있어 서측면에 비해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은 상태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채색 박락이 심한편이다. 서측면 외벽은 향좌측 부터 <松鶴圖>, <雲龍圖>, <童子吹笛圖>순으로 그려졌는데, <송학도>는 안료의 탈락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운룡도>와 <동자취적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남측면 포벽은 7점의 <如來圖>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동일한 도상이며, 대부분 여래의 상호가 소실되는 등 채색의 박락이 매우 심한편이다. 북측면 7점은 <羅漢圖>, <花鳥圖>, <草蟲圖>, <故事人物圖>등으로 다양한 도상들이 남아있지만 벽체는 비교적 양호한데 반해 채색박락이 심하다. 외부벽화는 훼손된 곳이 다수 있으며, 보체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인해 초기 제작형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2. 내부벽화

1) 내부 동·서측 『서유기』 벽화

용화전 내부에는 동측면 3점, 서측면 4점으로 7점의 벽화가 마주보고 있으며, 각 기둥에는 도상을 설명하는 방제가 확인됨에 따라 중국고전소설인 『西遊記』의 일부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표 1).³ 동측면 여간은 두 개로 나누어진 공간을 메워 제12회 <玄奘秉誠建大會>를 그렸으며, 향좌측 협간은 제94회 <一姪空懷情慾喜>, 향우측 협간은 제87회 <鳳仙郡冒天止雨>로 구성되었다. 서측면 여간은 두 개로 나뉘어진 공간에 제11회 <度孤魂蕭禹正空門>의 장면을 그렸으며, 향

³ '인연설화도'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8년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 일제조사에서 처음으로 서유기의 내용 일부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임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남도1)』(성보문화재연구원, 2008), p. 352.

좌측 협간은 제84회 〈難滅加持圓大覺〉, 향우측 협간은 제81회 〈黑松林四衆尋師〉로 구성되었다.⁴

〈표 1〉 통도사 용화전 내부 동·서측벽 『서유기』 벽화의 내용

회차	용화전 벽화 『서유기』 畫題	내용
11회	度孤魂蕭禹正空門	·태종의 명으로 수륙재를 주관할 고승을 선발하는 장면
12회	玄裝秉誠建大會	·현장이 수륙대회를 베푸는 장면
81회	黑松林四衆尋師	·선림사에서 요괴에 잡혀간 현장을 찾던 손오공이 三頭六臂의 괴물로 변해 광분하는 모습
84회	難滅加持圓大覺	·84회의 제목을 쓰고 85회 초반부 내용을 표현 ·滅法國에 도착한 현장 일행이 승려들을 죽인다는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귀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현
87회	鳳仙郡冒天止雨	·가뭄에 든 천축 변방의 봉선군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손오공이 천궁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나는 장면
94회	一姪空懷情慾喜	·천축국 부마로 선택된 현장이 요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간 후 요괴는 공주로 분해 손오공 일행의 방해로 피해 성 밖으로 나가게 해줄 것을 왕에게 간청함

동·서측 벽은 다른 내부벽화들과 마찬가지로 균열이 생긴 곳과 색이 박락된 곳이 다소 있으나 햇빛과 바람 등 외부환경으로 부터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그려졌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뛰어난 편이다. 동·서측 벽은 화면이 크고 도상이 다양하며 채색도 매우 선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통도사 용화전 벽화 중 가장 중요한 벽화로 생각된다. 『서유기』의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천사지 십층석탑〉(1348)과 〈원각사지 십층석탑〉(1467)에 부조형태로 남아있으나 이는 명대의 100회본 『서유기』가 간행되기 이전에 성립된 현장의 설화로 14세기 취경설화 혹은 원대 『서유기』의 내용과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⁵ 현재 〈서유기도〉가 그려진 사례가 몇 건 있지만 조선 후기 중국소설이 유행하면서 벽화의 한 포벽씩 삽도형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⁶ 그에 비해 통도사 용화전 내부벽의 〈서유기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제가 되는 벽화로 도상은 중국 명대판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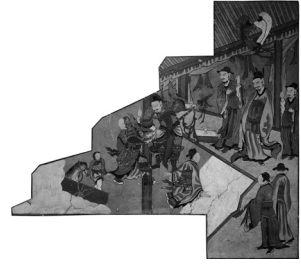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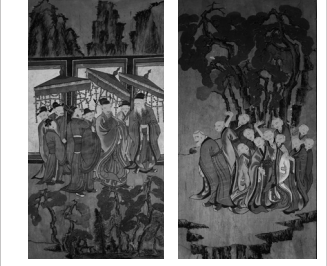

4 『서유기』는 중국고전소설 가운데 神魔小說의 대표작으로 唐代의 『大唐西域記』와 宋代 『大唐三藏取經詩話』 등 수많은 故事들이 수백 년간 축적되고 정리되어 대략 중국 明代(16세기 중 후기) 吳承恩에 의해 100회본 『서유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5 신소연, 「圓覺寺址 十層石塔의 西遊記 浮彫 研究」,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p. 80.

6 불국사 대웅전 내부 서측면 두 포벽에 각 〈豬八戒助被魔〉와 〈縛魔歸正得修身〉이라고 적혀있는 방제를 통해 100회본 서유기 중 61회와 62회의 내용 일부를 그려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구 용연사 극락전 내부 북측면 포벽에는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⁷ 『서유기』의 표현은 단순한 통속 문학이 아니라 證果라는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현장의 求法行 과정과 이를 수호했던 현장 일행의 공덕과 깨달음을 통하여 민중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좋은 예로 생각되었을 것이다.⁸ 또 사찰에 〈서유기도〉를 그려 넣으면서 수록재 모습을 도출해 그리는 것은 〈서유기도〉와 불교와의 연관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도상의 선택으로 생각된다(표 2).

〈표 2〉 용화전 내부 등·서측면 〈서유기도〉벽화(『한국의 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p. 370-382.)

		
일경공회정육희도, 122.5×143.5cm	현장병성건대회도, 138.3×162.3cm	봉선군모천지우도, 130×145.8cm
		
난멸가지원대각도, 128×144.5cm	도고혼소우정공문도, 139×73.8cm(좌) 138×73.4cm(우)	흑송림사중심사도, 128×137.8cm

서유기 기회의 장면인 〈孫五功變化鈴獻觀音〉이,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부 북측면 벽에 방제가 적혀있지는 않지만 소나무 아래 긴 막대기를 메고 뒤돌아보는 손오공과 경전을 싣고 있는 말, 저팔계, 삼장법사 등의 모습으로 〈서유기도〉의 일부 또는 〈玄奘取經圖〉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⁷ 박세진, 「통도사 용화전 벽화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p. 90-95에 판본별 제목과 도상의 비교를 통해 명대의 판본수용에 대해 밝혔으며, 이후 洪性楚, 「朝鮮時代《西遊記》의 傳播와 影響 연구-文獻記錄과 “西遊記圖”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6집 (2013), pp. 197-200; 최민아, 「통도사 龍華殿의〈西遊記圖〉 연구」, 『문물연구』 제28호 (2015), pp. 107-113의 두 논문에서 명대판본인〈이탁오선생비평서유기〉와의 비교를 통해 직접적인 도상 연원을 제시함으로써 통도사 용화전 〈서유기도〉벽화의 도상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⁸ 신소연, 「월각사지 십층석탑의 서유기 부조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p. 103.

2) 내부 하포벽

용화전 건물의 내부의 공포는 2단으로 천장까지 5출목의 공포를 짜올렸다. 이는 다른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내부 포벽이 상포벽과 하포벽으로 나뉘어진다. 남·북측 하포벽은 북측면 중간의 〈地藏菩薩圖〉 1점을 제외하면 〈나한도〉 13점이 지장보살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이다.⁹ 지장보살은 연화대좌에 앉아 반가좌를 하고 있으며 한손에는 석장, 한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다. 광배 부분에 굽힌 부분이 많으며, 석장의 상단부분과 향우측의 천의자락 부분에 채색이 박락된 곳이 있으며, 뇌록색을 바탕으로 적색, 흰색, 황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나한도〉는 사찰벽화에 많이 등장하는 도상으로 조선 후기 〈十六羅漢圖〉는 중국 명대의 판본인 『三才圖會(1607)』와 『洪氏仙佛奇蹤(1602)』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연구되었다.¹⁰ 또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도상을 모색, 창안하면서 조선 후기만의 특징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통도사 용화전 내부벽화도 佛祖圖像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¹¹ 남·북측면 하포벽은 채색이 박락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섬세하다.

3) 내부 상포벽

상포벽은 내부 남·북측면에 〈나한도〉세 점을 중심으로 〈고사인물도〉와 〈산수도〉가 배치되었으며, 동·서측면도 〈서유기도〉가 그려진 위에 포벽이 형성되어 〈고사인물도〉와 〈산수도〉를 그렸다. 하포벽은 한 포벽에 나한이 2명 배치되었으나 상포벽의 나한은 한 포벽에 인물 1명이 배치됨으로써 하포벽에 그려진 나한과 차별을 두었다. 또 『삼재도회』의 〈삼십삼조사도〉 중 〈第十二祖馬鳴尊者〉, 〈第二十八祖菩提達磨尊者〉, 『홍씨선불기종』의 〈龍潭崇信禪師〉등 하포벽에 비해 다양한 모습의 나한이 그려졌다. 〈고사인물도〉의 인물은 리본장식으로 머리를 묶고, 수염을 길렀으며, 뒷짐을 지거나 부채를 들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포벽의 가장자리 포벽은 주로 〈산수도〉를 배치했는데 다른 포벽에 비해 눈에 띄지 않지만 녹색 바탕에 물골법으로 간단한 수목을 그려 다른 벽화와 이질감이 없다. 상포벽은 다른 벽에 비해 비교적 윤곽선이 둔탁하며 필치가 떨어지고, 채색 또한 섬세하지 못하다. 또 동·서측 벽면과 하포벽은 주로 윤곽선의 개·보체가 이루어 졌다면 상포벽은 채색을 덧칠한 부분도 다소 있다. 상포벽은 건물에 들어섰을

¹⁰ 나한도와 명대화보의 영향관계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은미, 「조선후기 십육나한도 연구—불보도상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7 (2006); 신광희,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55 (2007); 同著, 「조선후기 십육나한도상의 계승」, 『동악미술사학』 10 (2009); 同著,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등이 있다.

¹¹ 신광희, 앞의 논문(2010), p. 276.

때 비교적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 섬세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4) 별지화

용화전 내부에 남아있는 벽화 외에도 별지화가 남아있어 주목된다. 남측면 창방과 평방에는 <雲龍圖>와 <雲鶴圖>가 그려졌으며, 대량을 받치는 서측면 보랑 바깥쪽에는 <鳳凰圖>, 안쪽 면에는 <童子吹笛圖>가 그려졌다. 동측면 보랑의 바깥쪽에도 서측면과 마찬가지로 <봉황도>가 그려졌고 안쪽면에는 <天女彈奏奚琴圖>가 그려졌다. 천장반자에는 <운룡도> 2점, <운학도> 2점, <봉황도> 2점이 그려졌다. 별지화들은 채색도 매우 잘 남아있으며, 개채된 흔적이 없어 내부벽화 들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용화전 벽화의 제작시기

통도사 용화전은 『佛宗刹略史』, 『各法堂初重創記念』에 의해, 1369년 초창 이후 1725년(영조 원년) 淸性大師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19세기 번와불사와 중수 현판이 있지만 중수 시주만 기록 되어 있어 건물에 대한 상세한 연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표 3). 현존하는 기록을 통해 외 부벽화는 19세기 후반으로, 내부벽화는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의 본존과, 서측 내벽화 에 그려진 <서유기도>의 본존의 유사성을 통해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 이다. 그러나 통도사 용화전이 위치한 중로전은 18세기 중반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제작시기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¹² 이에 본 장에서는 통도사에 현존하는 사료를 토대로 용 화전의 연혁에 대해 재고하고 벽화의 도상 및 표현, 특징을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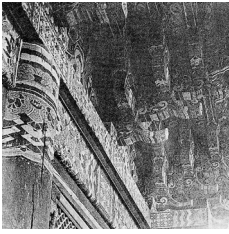


〈표 3〉 통도사 용화전 연혁

연대	내용	출전	중창주 또는 화사
1369	초창	『佛宗刹略史』, 『各法堂初重創記念』	
1725	중창	''	淸性雲淑
1798	<미륵불도> 조성	''	良工 玉仁
1858	번와불사	藥師觀音龍華三法宇 翻瓦有功記文 懸板	
1899	중수	龍華殿重修施主錄 懸板	化主 聖海

¹² 통도사 화재와 중창에 대해서는 신용철, 『通度寺 靈山殿의 歷史와 建築意匠考察』, 『불교미술사학』 6 (2008); 신용 철,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을 통해 본 통도사 가람의 변화와 의미』, 『불교미술사학』 22 (2016) 참고.

통도사 용화전 외부 포벽화의 <여래도>는 고동색, 갈색, 하늘색을 주조색으로 본존의 연화 대좌 주변으로 雲文과 연꽃이 피어오른 모습이다. 구름문의 방향과 모양, 채색 등은 통도사 대웅전 외부 포벽의 <여래도>와 매우 유사하다. 통도사 대웅전은 여러 번의 중수가 이루어지는데 『불종찰약사』에 의하면 光武 3년(1899)에 대웅전을 단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 이때의 단청 범위가 어딘지 정확하지 않아 벽화의 제작시기가 1899년이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龍華殿重修施主錄懸板>(1899)을 통해 용화전도 같은 시기에 한차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3). 『조선고적도보』(1915-1935)를 통해 두 건물의 외부벽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전각의 외부포벽에 지금과 똑같은 여래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표 4). 또 용화전 동측면 벽 중앙에 그려진 <호작도>는 언덕위에 소나무와 호랑이의 모습이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통도사 해장보각의 외부 동측면 벽에 그려진 <호작도>와 매우 유사하다. 해장보각은 1727년에 건립한 후 1900년 古山大師가 수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로보아 용화전 외부벽화는 개채와 보채가 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모습은 1900년대 초 사찰의 대대적인 불사 속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통도사 대웅전·용화전 외부포벽 여래도

	
<p>대웅전 외부 동측면 포벽 <여래도>, 63×101cm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172.)</p>	<p>대웅전(『朝鮮古蹟圖譜』第十三冊)</p>
	
<p>용화전 외부 남측면 포벽 <여래도>, 56.5×87.5cm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365.)</p>	<p>용화전(『朝鮮古蹟圖譜』第十三冊)</p>

¹³ 韓國學文獻研究所, 『通度寺誌』(亞細亞文化社, 1977), p. 175. 光武三年己亥九月大雄殿法堂丹青.

용화전 내부벽화의 제작시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화전이 위치한 통도사 중로전의 18세기 중반 대규모의 화재로 인한 소실과 재건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 1759년 제작된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1759)은 중로전에 위치한 대광명전 화재와 중건된 이유, 시기, 시주자들과 시주된 품목인 錢, 玉, 米 등이 기재되었다.

‘(생략)…1756년(丙子) 10월 21일 밤 子時에 화재가 발생하여 法堂四位, 僧寮四所, 庫舍十間 이 회진되었다. 이에 1758년(戊寅) 1월 초7일 공사를 시작하여 三法堂을 9월 26일 중건하고 내외장식까지 마쳤다. 이후 1759년(己卯) 4월 초에 시작하여 6월 26일까지 대광명전 丹牆을 완성하면서 毘盧佛像, 영산전불상도금, 후불탱을 동시에 완성하였다.…(생략)¹⁴

또 중로전 화재와 관련된 기록인 <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1757)에는 문수전의 피해와 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주목된다.

‘(생략)…1756년(丙子) 10월 21일 불이 마침 곳간에 옮겨 붙으니 한번을 지키지 못하고 공이 거처 한 堂 역시 화재를 면하지 못하였다.…(생략)¹⁵

이때 발생한 화재로 통도사 중로전 일대 대부분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앞에서 살펴본 사료에는 통도사 용화전이 화재와 관련 되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

¹⁴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 1759년, 27×264cm,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丙子年十月二十一夜子時火出于中室之燻造積處法堂四位僧寮四所庫舍十間片時煨燼居者過者無一人謂重成之者所見素邈而其年試成勸軸乞投山中德及諸山碩德則各隨所親編出四方所侍六千餘財也戊寅正月初七日爲始六月敝回向而三法堂營建九月二十六日內外修裝畢之其冬又成丹牆勸文己卯四月初始役六月二十六日回向畢且毘盧佛像及靈山殿佛像鍍金及後佛幀亦一時成辦頓畢之後六甲諸員亦發大心大役落成齋人之會者一二億數所入齋米合三百餘石凡齋具所入二千餘財也此是佛菩薩神將之所助非人力也云爾 원문에 대한 해석은 신용철, 『通度寺靈山殿의 歷史와 建築意匠 考察』, 『불교미술사학』 6 (2008), p. 67 참고.

¹⁵ <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 1757년, 32.2×148cm,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堂乃古梵音○胡所創而今梵音慧淨公居之公亦魚山師宗也當於丙子年十月二十一日火祇困運不一守入火○此公之所屨堂亦未免災矣此堂之右則石鍾戒壇聳出雲外左則毘盧寶殿翼然凌虛○在其間則豈無慨然於心地乎恨無嚙臂主張者公○憤景美之○而憤順胡之志率畧一十法侶先出己財傍募檀緣石數月而成之潮度窈闊越等前瀾依○於大智文殊師華嚴菩提場中先請妙法於毘盧佛也堂名文殊其亦寓意於此矣後○音淨公則前梵音胡公之功天公之侄於兩公其亦異哉景最勝妙矚目而悉而至於前後寺蹟之美余亦未○愚拙而文亦蠅毛○以不能記○以檀施之芳名示諸後來之眼目云耳時乾隆二十二年丁丑八月日海東沙門雲坡六幻記 원문에 대한 해석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최두현 선생이 도움을 주셨다.

〈표 5〉 중로전 화재와 관련된 기록

연대	명칭	주요내용
1756년 10월 21일	대광명전삼성공필후현판	子時 화재 법당4위, 승료4곳, 창고10칸 전소
1756년 10월 21일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	화재
1757년 8월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	문수전 중창
1758년 9월 26일	대광명전삼성공필후현판	삼법당 중건, 내외 장식
1759년 6월 26일	대광명전삼성공필후현판	丹腹(단청), 비로자나불 조성, 영산전 불상도금, 후불탱 조성
1760년	불종찰약사	춘파대사에 의해 명부전 중건

러나 용화전은 문수전(現 장경각) 보다 직선으로 훨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법당 4동을 태울 정도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문수전 보다 화마를 피해가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다(도 2).¹⁶ 최근 통도사 용화전 건축의장을 통해 통도사 용화전이 1756년 중로전 대화재와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¹⁷ 용화전 건물 내부 남·북측 주간포 살미 끝의 묵서와 대광명전 내부 좌·우측 평방의 묵서는 동일한 화마 진언이며, 두 건물의 공포 부재의 용조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⁸ 특히 용화전은 내·외부 정면과 후면 어칸 기둥머리, 외부 포작 위에 짜여진 모든 출목위에 제공 등 용두 장식만 총40구로 6구를 표현한 대광명전 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이는 건물의 크기를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¹⁹ 이 외에 대공을 花盤臺工으로 만들어 화반 사이 곳곳에 물고기, 거북이 등 수중생물을 조각해 놓은



도 2 대광명전과 용화전의 거리(필자촬영)

¹⁶ 신용철,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을 통해 본 통도사 가람의 변화와 의미』, 『불교미술사학』 22 (2016), pp. 231-235 에 문수전이 현존하지 않지만 현재의 장경각 자리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한다.

¹⁷ 신용철, 앞의 논문, pp. 235-239에 현재 남아있는 문헌자료와 건물의 특징 등을 감안할 때 화재로 인해 소실된 4위의 법당은 대광명전, 문수전, 명부전, 용화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¹⁸ 吾家有一客, 定是海中人, 口吞天漲水, 能殺火精神 “우리 집에 손님이 한분 계시는데 바다에서 온 사람이니 하늘의 맑은 물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있어 능히 화마를 다스린다.”

¹⁹ 신용철, 앞의 논문, p. 237.



도 3 통도사 용화전 동측면 벽 위 화반대공(필자촬영)

것으로 보았을 때 용화전은 대광명전 보다 화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도 3).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통도사 용화전은 1725년 중건 이후 또 한차례 18세기 통도사 중로전에서 일어났던 대화재로 인하여 대대적인 재건불사가 진행될 때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756년 화재로 문수전, 대광명전, 명부전, 용화전이 차례대로 재건되었으며, 용화전의 중건은 1760년 명부전이 중건되기 이전에는 완료되었을 것이다.²⁰ 전각 건립 이후 단청이 바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통도사 중로전 재건불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고 약 4년에 걸쳐 건물이 모두 중건되었으며, 대광명전은 벽화와 단청을 하고 후불탱화까지 모신 것으로 보아 매우 순차적으로 불사가 잘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같이 중건된 용화전에만 예외로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개채가 이루어 졌지만 비교적 잘 남아있는 벽화를 중심으로 도상들의 표현 및 특징을 분석한다면 벽화의 제작시기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통도사 용화전 벽화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벽화로 동·서측벽의 서유기도 벽화를 들 수 있다. 朱色과 綠色을 주조색으로 매우 선명하게 채색 되었으며, 서유기 소설의 각 장면에게 맞게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서유기 12회의 내용을 도해해 놓은 <현장병성건대회도>는 수록재를 행하는 모습으로 장막에 번을 드리우고 불단을 마련하여 공양물들과 촛대가 올려져 있으며, 본존

²⁰ 신용철, 앞의 논문, p. 238.

건물명	규모	복원시기	근거	비고
대광명전	5×3칸, 팔작지붕	1758년	현판	보물 제1827호
문수전	미상, 팔작지붕(추정)	1757년	현판	
명부전	5×3칸, 팔작지붕	1760년	『불중찰약사』	경남유형 제195호
용화전	3×3칸, 맞배지붕	1760년(추정)	건축의장비교	경남유형 제204호

여래는 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으로 수륙재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다.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의 본존은 수화사 임한이 제작한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설법도>(1740)와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아미타설법도>(조선후기)의 본존과 전체적인 형태 뿐 아니라 옷주름의 꺾임이나 손가락의 모습, 그리고 본존의 크기 등이 같아서 전대의 잘 그려진 불화의 초본을 사용하여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즉 앞선 도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의 본존과 <현장병성건대회도>의 본존의 유사성만으로 벽화의 조성시기를 단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표 6). 용화전 벽화의 조성시기를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의 제작시기가 아닌 건물의 중창시기에 맞춰 1760년 경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유로 대광명전 내부벽화의 유사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6〉 동일 초본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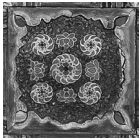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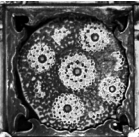

		
<p>〈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설법도〉 본존, 1740년, 235×295cm, 보물 제1472호(『한국의불화1 통도사 본사편(上)』, 1996, p. 73.)</p>	<p>〈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아미타설법도〉 본존, 조선후기, 283.5×222.5cm, 경남유형문화재 제371호(『한국의불화3 통도사본말사편(下)』, 1997, p. 68.)</p>	<p>〈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본존 1798년, 183×172.5cm, 경남유형문화재 제420호(『한국의불화1 통도사본사편(上)』, 1996, p. 112.)</p>

²¹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설법도>(1740)와 <통도사 용화전 미륵불도>(1798)와의 동일초본 사용에 대해서는 김현수, 『조선후기 불화사 임한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50-51에서 언급 하였으며,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아미타설법도>(조선후기)와 동일 초본 활용에 대해서는 박일웅, 『通度寺聖寶博物館 所藏 阿彌陀後佛幀과 任閑派』, 『불교미술사학』 제 4집 (2006), p. 260에서 언급했다. 박일웅은 연대가 정확하지 않는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아미타설법도>의 제작시기를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의 바로 뒤 시기로 보았으며, 임한에 의하여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첫째, 용화전 내부벽화는 전체적으로 주색, 녹색, 황색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이는 대광명전 내부벽화와 동일하다. 특히 표현된 <나한도>의 가사와 인물의 옷은 주로 녹색, 흰색, 황색, 주색의 네가지 색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각각의 색마다 단순한 명암을 쓴 것에서 벗어나 그라데이션을 넣어 옷자락의 색을 단계적으로 채색하였다. 이런 채색방법은 화폭의 재질 특성상 섬세한 문양표현이 힘들며, 가까이 친견할 수 없는 벽화의 특성상 문양을 사용한 것과 같은 화려한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건물의 벽화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런 채색법은 용화전 벽화의 중심인 수륙회 장면인 <현장병성건대회도>의 본존의 장삼과 복측 하포벽 중간의 <지장보살도>, 대광명전 내부 포벽 <여래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두 건물 모두 존격에 따라 차별성을 두고 무게감 있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두 건물의 내부벽화는 세부표현의 유사성이 매우 크다. 용화전 내부벽 남·복측 하포벽은 모두 13점의 포벽에 <나한도>를 그렸다. 13점의 <나한도>는 흰수염의 노승과 검은머리의 젊은승을 반복 표현하면서 단조로움을 피하였고 나한들은 모두 절벽위에 서있으며 절벽에는 크지 않은 나무가 한그루씩 그려졌다. 작은 활엽수이며 꽃잎은 흰 꽃잎에 붉은 수술이 있는 형태로 꽃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체 벽화 중 나한이 그려진 하포벽에만 통일되게 그려졌다는 것에 주목된다. 이 꽃은 대광명전 <나한도>를 그린 포벽에도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대광명전에 그려진 꽃은 흰 꽃잎에 붉은 수술은 동일 하지만 그 안에 먹선 또는 흰색 점으로 중간에 씨방을 표현하여 세부적인 부분을 신경써서 그렸다. 두 꽃은 화격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꽃을 그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표 7).

〈표 7〉 통도사 용화전 내부 벽화와 대광명전 내부 벽화의 비교

	용화전과 대광명전 내부벽화 나무 꽃	용화전과 대광명전 내부벽화 가사자락	천장반자	단청
용화전				
	내부 남측면 하포벽 <나한도>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377)	내부 북측면 하포벽 <나한도> 가사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387)	내부 천장반자 (필자촬영)	대량 머리초와 주·昌放 머리초 (필자촬영)
대광명전				
	내부 동측면 포벽 <마나리대사도>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138)	내부 서측면 포벽 <나한도> 가사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147)	내부 천장반자 (필자촬영)	대량 머리초와 주·昌放 머리초 (필자촬영)

벽화에 그려진 나한들의 눈썹은 안쪽에서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점점 눈썹이 두꺼워지며 눈썹 끝을 길게 늘어뜨려 눈꼬리의 끝보다 눈썹을 더욱 길게 늘어뜨렸다. 18세기 불화에서 나한의 눈썹은 대부분 위와 같이 표현 하는게 일반적이나 용화전 벽화들의 눈썹표현은 눈썹 끝을 두껍게 그리며 몇 가닥만 길게 늘어뜨려진 모습으로 표현이 매우 과장되어 있는 편이다. 눈은 눈꼬리를 길게 빼내어 가장자리를 처지게 그렸으며, 눈위의 눈꺼풀을 먹선으로 질게 긋고 눈 아래 눈동자가 있는 중간은 밀선을 얽은 먹선으로 그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준다. 눈동자는 눈 전체에서 약간 위로 뜬 모습으로 눈동자가 눈 전체에서 위쪽에 그렸는데 이로 인하여 눈이 익살스러워 보이면서도 슬퍼 보이는 모습이다. 이 나한의 눈의 모습은 같은 시기에 대광명전 불사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봉안된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의 나한도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표 8).

셋째, 토벽에 그려진 벽화 뿐 아니라 두 건물의 단청의 도안, 채색, 구조, 기법 등이 동일하다. 천장반자의 화문은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 3겹의 꽃잎으로 된 연꽃을 중앙과 사방으로 배치한 후 立面의 작은 연화를 4개 그리고 빈 공간을 당초문을 뺀백하고 화려하게 시문하였다. 또 앞 유형의 꽃에 가운데 동심원을 마련하여 범자 또는 '아미타보살', '관세음보살' 등의 명호를 적었다. 또 한가지는 연꽃 대신 모란문을 전체적으로 배치한 유형이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국화문을 표현하고 당초문으로 여백을 채우기도 하고, 선으로만 그리기도 하는 등 매우 화려한 천장반자 구성을 이루었다. 천장반자의 도안은 대광명전과 같은 형식으로 이 외에 대량의 단청과, 평방, 창방의 머리초 등도 같다(표 7).

〈표 8〉 안면표현 비교

		
<p>통도사 용화전 내부 북측면 하포벽 <나한도> 56.5×83cm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386.)</p>	<p>통도사 대광명전 내부 동측면 포벽 <아시다존자도> 55×75.5cm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138.)</p>	<p><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비로자 나불)>부분, 1759년, 마분채색, 420×315cm, 보물 제1042호 (『한국의불화1 통도사본사편(上)』 1996, p.11.)</p>

이상과 같이 용화전은 1725년 중창이후의 벽화의 조성시기 뿐만 아니라 건물의 연혁에 대한 편년자료 또한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1756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중로전 대화재 때 함께 소실되었으며, 이후 같은 시기에 순차적으로 건물이 중창되었음을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용화전 내부벽화의 세부 특징이 대광명전 내부벽화와 거의 흡사함에 따라 내부벽화는 1760년 전후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외부벽화는 환경의 영향과 잦은 보존처리로 인하여 1899년 전후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용화전 벽화의 제작자

1. 용화전 벽화의 표현과 제작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화전은 1756년 중로전 대화재 때 소실되었으며, 용화전 내부벽화는 대광명전 내부벽화와 표현 및 채색, 특징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화사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용화전과 함께 중창된 건물들의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중로전 불사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확인하고 용화전 내부벽화의 제작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로전 대화재 이후 제일 먼저 중창된 문수전은 현재 건물이 남아있지 않아 벽화 및 단청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1757)를 통해 건물은 화재 이후 10개월 만인 1757년 8월에 중창 되었다는 내용과, 圖片手 德成 외 7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도편수 덕성과 性峯을 포함한 6명은 행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定聰의 경우 문수전 중창 이후부터 통도사와 인연으로 <통도사 응전전 석가모니불도>(1775)의 양공으로 화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용화전 벽화 불사와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이것으로 보아 문수전은 다른 건물에 비해 1년 이상 빠른 시기에 중창되었기 때문에 대광명전과 용화전의 벽화와 단청을 제작한 화사들의 관계를 확인할

²² <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 懸板>, 1757년, 32.2×148cm,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時僧統○榮時住持處明時書記德守時首僧元旻前函秩前僧統義玄前僧統明贊前僧統神悅前僧統學文前僧統明信緣化秩都片手德成片手性峯片手定聰通淑戒伯太悅奉安位說本房秩指揮都監義玄大化士慧淨覺聰別座體詳化主善己化主錦惠化主怡悅都牌將性允供養主如海位諶奉安萬俊諶遠大功德鍊板會玄大功德○所夏潤懸板畫功志玄治匠朴守補引鉅金正太都監前任持處海

수는 없다.²³

중로전 대화재 이후 가장 늦게 증창된 명부전은 『불종찰약사』에 따르면 춘파대사에 의해 명부전이 증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외에 당시 불사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다. 현재 건물은 〈冥府殿重建記懸板〉(1890)을 통해 1887년 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이듬해에 虎惺大師가 증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1759년 화재이후 1760년에 증건된 건물은 이미 소실되어 그 당시의 건물의 벽화와 단청화사에 대해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²⁴

중로전 대불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으로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중인 〈己卯年改金幀畫丹牒事施主記〉(1759)가 있다. 이 현판은 1759년에 기록되었으며, 주체가 되는 전각명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주자들의 이름과 시주물목과 양을 나열한 후 단청화원과 개금화원, 탕화원을 기록하고 있어 주체가 되는 전각을 추정할 수 있다.²⁵ 먼저 幀畫員 任閑·夏潤·斗英·玉尙·普寬·平印·太一·碧朋·孟學·太俊·守一·成益·守性·戒澄·興悟·伊活·尙心은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의 화기에 기록된 화사와 일치한다.²⁶ 또 證師 또한 花谷誠天, 雲庵平心 와 誦呪 萬輝으로 기록이 일치함에 따라 〈기묘년개금탱

23 이 기록에 산증질로 등장하는 竹庵照鑑은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화기에 산증질로, 〈己卯年改金幀畫丹牒事施主記〉에 단청화주로 등장하고 있어 이 시기에 대광명전과 같이 불사가 진행된 곳에 대해 발원하고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대광명전 탕화원으로 등장하는 夏潤은 화사 임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사로 〈양산통도사문수전증창기〉(1757)대공덕 시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이 모든 불사는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

24 〈冥府殿重建記懸板〉, 1890년, 35.8×210cm,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冥府殿重建記去丁亥春廿房失火上下比屋同八烘窯此殿亦无救焉。玆明日普集合院聽龜者之協從咸曰房寮之復非曰不愚而冥府之露坐奚可咎刻忍乎衆欲有爲而事有可涓時主管長老厖惺和尚道斯事冲稠班中閃數介善男子前僧統文佑願施三百金前和尚定日前典座鳳五亦各捐一百金且山中諸德招余荷一方之化錄余亦焦頭方灰坐墜枕然重孤衆命兼喜一贊之參行化東梁諸松城移功赴緣者不啻若千百數金仍卽始役閱六箇月功告凡擴其基侈其楹暈乎翼乎倍口前制者悉聽厖惺和尚之圭揮也噫殿旣成和尚繼逝蓋和尚句管寺務幾多年意以身終於佛事和尚之平生用力於護佛宇可知之矣五聲長老慨一簣之虧功復歛蔚彥信戶鳩數百銅而丹牒之蓋此役也衆功所遂若六相未圓三輪未空倘或有孰者孰當之經庭而其必曰非地藏菩薩久遠劫來賣家舍衣之弘願豈其使衆誠若是其洙欺后之視此殿者一瞻一禮圖以是思之庶不虛衆人之功爾光緒十六年庚寅八月下浣化主永海智宗謹誌山中秩天房

25 〈己卯年改金幀畫丹牒事施主記〉, 1759년, 24.5×217cm,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嘉善敏察文一百兩租十石○以五六十金爲欠○○林召史爲亡夫通政金得必文一百兩施改金文一百兩爲欠○○通政性淨文六十兩…(중략)丹青畫員任閑玉尙守性斗薰思玉浩心義悅守雲尙心成益典守戒澄自安興悟宜初伊活智玄普演自淨太雲李世万梵魚寺文二十兩長安寺文五兩雲水寺文三兩俊是文十兩改金畫員稱淑率人六幀畫員任閑夏潤斗英玉尙普寬平印太一碧朋孟學太俊守一成益守性戒澄興悟伊活尙心證師花谷誠天雲庵平心誦呪萬輝○和供養主性祖昶日普性采圭采弘性負木願成來往弘屹春正廣軒都監戒賢別座頓和改金幀佛兼丹青化主凝庵竹庵所得八百二十兩米二十石丹青化主洛峯漢琦所得文三十兩月谷贊慧所得四十五兩

화단화사시주기>(1759)는 대광명전 불사 때 단청과 탱화조성에 대한 기록임에 확실하다.

<기묘년개금탱화단화사시주기현판>(1759)에는 단청화원과 탱화원이 따로 기록되었다. 단청 화원으로 임한을 포함해 21명의 화원이 참여했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용화전 내부벽화는 대 광명전 내부벽화와 매우 유사하므로 대광명전 단청을 주도했던 임한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9).

〈표 9〉 통도사 증로전 불사의 제작자 관련 기록

전각	명칭	내용	화사
대광명전	<기묘년개금탱화단화 사시주기현판>(1759)	병자년(1756)10월 21일 화재 이후 1759년 4월초에 대광명전 단청을 시작하여 6월 26일 완성	丹青畫員任閑·玉尙·守性·斗薰·思玉·浩心·義悅·守雲·尙心·成益·典守·戒澄·自安·興悟·宜初·伊活·智玄·普演·自淨·太雲·李世万 幀畫員任閑·夏潤·斗英·玉尙·普寬·平印·太一·碧朋·孟學·太俊·守一·成益·守性·戒澄·興悟·伊活·尙心
문수전	<양산통도사문수전중창기현판>(1757)	병자년(1756)년 10월 21일 화재 이후 정축년(1757) 8월 중건	都片手 德成·片手性岑·片手定聰·通淑·戒伯·太悅·奉安·位諤

임한은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도>(1740)조성 이후 <청도 운문사 삼장보살도>(1755)와 <청도 운문사 삼신불도>(1755)의 수화사로 활동하면서 화사 處一, 性淸, 性澄, 등과 화업을 이루고 활동지역을 넓혀 나갔다. 이후 통도사 대광명전 화재로 인한 불사가 진행되면서 임한은 영축산 화승집단에 외부 화승을 수용했다.²⁷ 대광명전 불사의 탱화원으로는 같이 화업을 이어 왔던 하운을 次畫師로 두고 다음으로 두영을 돕으로써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를 제작하였으며, 단청화원으로는 화사 玉尙을 차화사로 두고 벽화와 단청 불사를 진행하였다. 대광명전 단청화원에 등장하는 화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주로 경상도 일대 시주질, 또는 공양주로 등장한다. 이에 화업을 전혀 해본 적 없는 화사들이 주를 이루어 등장하는데 당시 대광명전과 함께 4

26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비로자나불)>, 1759년, 마본채색, 423×299.5cm, 보물 제1042호,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畫記 乾隆二十四年己卯七月日 梁山北鷲棲山通度寺大光明殿法身幀 婆蕩彩色供養施獨辦大施主通政性定保體緣化秩 證明花谷誠天 平心 誦呪萬輝 六和 上下持殿月谷贊慧 錦惠 良工秩 任閑 都片手夏閨 玉尙 守性 普寬 成益 尙心 若朋 平仁 太一 戒澄 興悟 孟學 太俊 伊活 守日 山中秩 花谷誠天 西岳道泰 幻虛念學 凝庵希有 竹庵照鑑 南溟洛鷹 鼎岩定宇 春坡廓然 慶坡璟心 弘信 維岸 奉璉 任活 本寺秩 時僧統任侃 時住持達奎 前僧統明慎 學文 前住持性云 聖日 元日 丹屹 書記自聰 首僧次英 三寶○○ 內典座太天 外典座○○ 供養主性祐 祖日 勝益 采弘 彩奎 普性 負木顯成 眷正廣軒 來住弘屹 都監戒玄 別座頓華 化主凝庵希有 竹庵照鑑

27 이용윤, 「조선 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 112.

개의 동이 불에 타는 큰 화재로 인해 대대적인 불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통도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사들 외에 타 지역의 화사들을 초빙하여 한시적으로 함께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다.²⁸

여기서 주목해야할 단청화원으로 임한 다음으로 등장하는 玉尙이다. 옥상은 1759년 이전 전라도 인근 불사에 시주질로 주로 등장한다. 1760년 전 후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아미타설법도>(조선후기)²⁹에 화원으로 등장하는 예가 있으나 이는 대광명전 불사 이후로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³⁰ 이때까지 임한과 함께 화업을 하지 않았던 옥상을 대규모 불사의 차화사로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대광명전 단청화원으로 활동하기 전 옥상의 행적 중 <청도 대적사 중수기 현판>에 丹靨緣化秩畫員으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광명전 단청화원 守雲 또한 청도 대적사 중수에 화원으로 등장하며, 임한과 함께 <청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1755)와 <운양민속박물관 소장 삼장보살도>(1755)를 조성한 인연으로 대광명전 불사에 초빙 되었을 것이다.

<청도 대적사 중수기 현판>은 대적사 극락전의 중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벽화의 조성은 1755년 수화사 尙悟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수화사 상오는 <부귀사 아미타불도>(1754)에 임한과 시주자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별도의 화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

28 옥상(玉尙:-1705-1759-)은 <쌍계사 사천왕상 복장>(1705)에 시주자로 등장한 이후 <청도 대적사 극락전> (1755)단 환연화질화원으로 등장한다. 수성(守性: -1722-1767-)은<청곡사 괘불탱화>(1722) 조성시 造鍊 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화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옥(思玉:1745-1759-)은 <부석사 오불회괘불탱화>(1745)복장대시주자로 등장하고 강원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삼존불좌상>제작에 참여하였다. 이외에 화사도 불화사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화사가 드물며, 화사 대부분은 1759년 대광명전 불사를 시작으로 불화사로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9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아미타설법도>, 조선후기, 견본채색, 238.8x221cm,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71호 畫記: …畫員秩○演○草弘○淨○能○致○斗○思玉自聰○○眼玉尙音管○哲○鵬

30 박일웅,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아미타후불탱과 임한과」, 『불교미술사학』 제4집 (2006), pp. 257-277에 남아있는 화기의 화원질과 여러 작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1759년 <대광명전 삼신불탱>이 조성된 이후에 임한의 화풍을 이어받은 화사들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추정하고 있다.

31 <청도 대적사 중수기 현판>은 <대적사 극락전>의 1754년 조성의 명문 암막새를 통해 극락전 변와불사와 장엄불사와 관련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대적사 극락전은 1754년 漢應 및 창건주와 이름이 같은 體澄이 법당을 중수하였는데, 이때의 중수불사는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예전 건물을 이용하여 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장엄불사였으며, 이듬해 단청을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내부벽화는 1755년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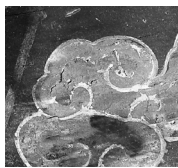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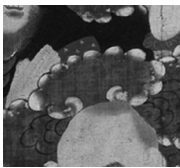
<大寂寺重修記懸板>, 조선후기, 나무, 26x179cm, 1점, 극락전.

大寂寺重修記…(중략)…緣化秩都大木灌頂片手得悅最性錦學淨瑞簡惠鉅解崖世石治匠金才匠都監漢應別座竺談供養主釋岑世安良信霸掌良益淨容丹腹緣化秩都監漢應化土體澄別座月輝蓮卜宗坦斗允都畫員尙悟瑞澄達華處日道眼崔允尙性贊守雲卓悟性總攸行法聖供養主宗坦致玄時任秩和尚淡時書記體澄持事月輝首僧宗坦三寶宗下持殿祖白侍奉玉心有澄本寺秩老德勝擇

아 화사가 自費로 불화를 제작해 사찰에 기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임한과 함께 화업을 했던 處一과 〈운문사 삼장보살도〉(1755)를 제작함으로써 상오는 단독 불화 작품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한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다.³²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대광명전 대불사 때 상오와 함께 〈청도 대적사 극락전 벽화〉(1755)를 제작했던 옥상이 통도사 대광명전 단청화원으로 참여했으며, 필력을 인정받아 통도사 중로전 불사에 차화사로 초빙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화전 벽화는 대광명전 벽화와 제작시기가 동일하며, 세부 요소 등이 유사하여 임한의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의 나한의 눈과 눈썹 입술 등이 매우 유사하다. 본존의 상호는 약간의 역 사각형의 얼굴에 눈매를 가늘게 그리고 초록색 바탕으로 눈썹을 그리고 위에 먹선으로 한번 더 그어 선명하게 해주었다. 이외 양 끝이 말린 구름의 표현 등 임한의 화풍으로 보이는 세부표현까지 반영되었다(표 10).³³

〈표 10〉 동일한 시기에 임한에 의해 제작된 작품

	용화전 내부벽화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p.369-391.)	대광명전 내부벽화 (『한국의사찰벽화-경상남도1』, 2008, pp.138-153.)	대광명전 삼신불도(비로자나불) (『한국의불화1 통도사본사편(上)』, 1996, p.11.)
나한도			
상호표현			
구름			

32 장희정, 「18세기 通度寺와 畫師 任閑」,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 p.138.

33 김현수, 「조선 후기 불화사 임한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p. 27-29.



도 4 <통도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도>, 1740년, 견본채색, 235.0×295.0cm (『한국의불화1-통도사본사편(上)』, 1996, p.73.)



도 5 통도사 용화전 내부 동측벽 <현장병성건대회도>, 138.3×162.3cm,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남도』, 2008, p.372.)

특히 임한은 주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권속들과의 크기의 차별화를 주고 주존의 장엄에 색과 문양을 달리하거나 강약을 조절하여 본존을 돋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로 작품을 제작해왔다(도 4).³⁴ 용화전 내부 동측벽의 <현장병성건대회> 수륙회를 여는 장면은 여러 권속들이 등장하며, 이러한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불, 보살에는 벽화 전체에 표현된 그라데이션 기법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주존을 웅장하고 무겁게 표현하려는 의지 등이 반영되었다(도 5).

그러나 대광명전과 용화전 두 건물의 벽화의 화격은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난다.³⁵ 대광명전 불사의 중심인 화사 임한은 동시기에 단청과, 후불탱화의 조성을 진행해야 했으며, 특히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는 임한의 다양한 화풍이 모두 반영된 걸작으로 임한이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대광명전 벽화 보다 규모가 작은 용화전 벽화는 전체적인 구상과 진두지휘는 수화사 임한의 몫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함께 참여한 다른 화사들의 역량에 일부 맡겨졌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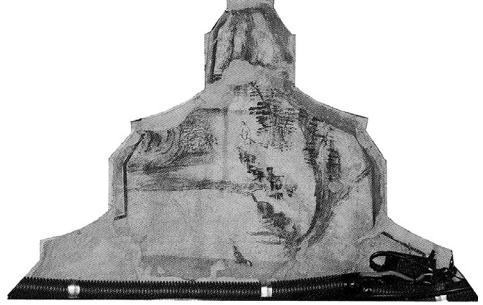
대광명전의 포벽은 단층 포벽으로 구성되어 <나한도>와 <고사인물도>등으로 빼곡하나 용화전 상포벽은 작업하기도 쉽지 않으며 비교적 눈에 띄지 않아 가장자리에는 인물을 생략하고 간단

³⁴ 장희정, 앞의 논문, p. 141.

³⁵ 박세진, 「通度寺 龍華殿 壁畫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 49. 내부벽화 중 중요도가 높은 <서유기도>를 중심으로 하포벽의 나한도는 후에 덧칠한 부분이 있어도 원래의 화격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서면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포벽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부표현이 생략되어 도상이 간략하게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곽선이 유려하지 않으며, 화격이 떨어진다.



도 6 통도사 용화전 내부 남측면 상포벽 <산수도>, 55×69.5cm (『한국의 사찰벽화 - 경상남도1』, 2008, p.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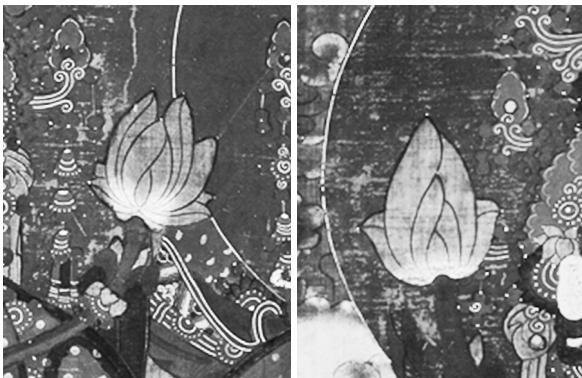


도 7 청도 대적사 극락전 내부 남측면 포벽 <산수도>, 44.7×51.7cm (『한국의 사찰벽화 - 대구광역시·경상북도1』, 2010, p.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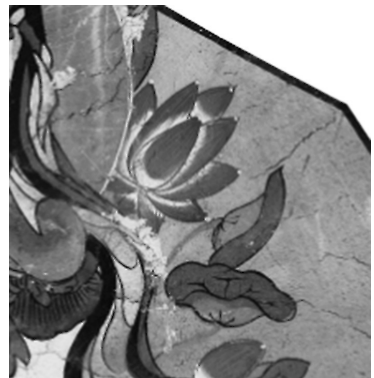
히 그릴 수 있는 <산수도>로 대체되었다(도 6).

주변과 어울리는 녹색으로 바탕색을 깔고 먹으로 그렸는데, 섬세하지는 않으나 화격이 비교적 떨어지는 상포벽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빈 공간을 두지 않으면서 이질감 없이 표현되었다. 이런 표현은 옥상이 참여한 <청도 대적사 극락전 벽화>(1755)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도 7). <청도 대적사 극락전 벽화>(1755)는 현재 많이 박락된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주조색과 특히 산수의 표현은 용화전 벽화와 매우 유사하며, 인물들의 옷자락 표현에서도 일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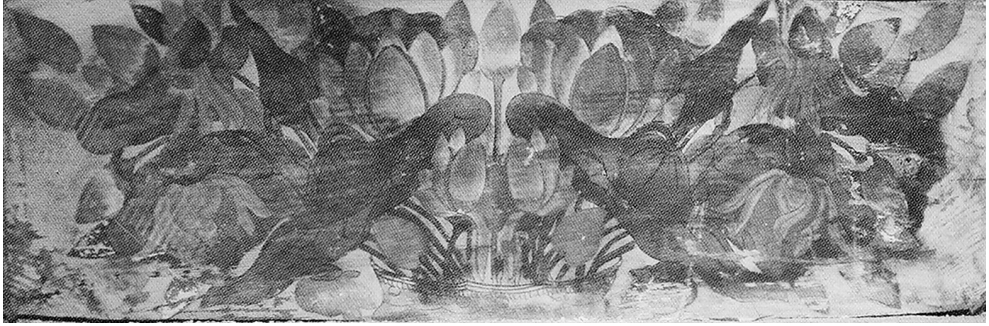
또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비로자나불)>(1759)의 보현보살이 봉헌한 연꽃봉우리는 꽃잎이 실제로 서로 겹치고 있듯이 입맥이 입체적이며, 매우 탄력적이고 생명력있게 표현되어 임한의



도 8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비로자나불)>부분, 1759년, 마본채색, 420.0×315.0cm (『한국의 불화1 통도사본사편(上)』, 1996, p. 11.)



도 9 통도사 용화전 내부 남측면 하포벽 <지장보살도>부분, 56.5×82.5cm (『한국의 사찰벽화 - 경상남도1』, 2008, p. 386.)



도 10 청도 대적사 극락전 내부 북측면 내목도리 윗벽 <蓮花圖>, 28.5×104cm (『한국의 사찰벽화-대구광역시·경상북도』, 2010, p. 432.)

필력이 매우 돋보인다(도 8). 통도사 용화전 내부 남측면 하포벽의 <지장보살도>에도 이러한 연꽃이 표현 되어있다(도 9). 광배 뒤로 연꽃이 에워싸고 있는데 벽화의 특성상 불화에 표현된 것만큼 유려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도식적이며 단순화 되었다. 이런 도식화된 표현의 연꽃은 청도 대적사 극락전에 두 폭에 걸쳐 그려진 <연화도>의 꽃잎과 꽃봉오리까지 매우 흡사하다(도 10).

옥상은 이전 화업으로 청도 대적사 극락전 벽화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수화사 임한과 주요 화사들이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와 내부벽화의 단청 작업에 주력하면서 규모가 더 작은 용화전의 작업에는 화사 옥상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이 주어지면서 역량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용화전 벽화의 의의

용화전 벽화는 건물의 규모가 작지만 그 안에 <서유기도>를 비롯하여 <나한도>, <고사인물도>등 다양한 도상을 그리면서 건물내부를 매우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특히 <서유기도>는 부조상을 제외하고는 벽화로 그려지는 사례중 첫 번째이며, 중국고전소설이 조선시대 유행하면서 명대 판본의 삽화를 차용한 사례 중 하나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에는 <三藏法師西遊路秘記>(1652)가 전해지고 있어 통도사에 있던 승려들도 서유기의 내용인 현장의 求法行에 대한 인식이

36 <三藏法師西遊路秘記(1652년)>1652년, 종이, 32×627, 筆寫本, 1축, 통도사성보박물관소장.

刊記: 時維 順治九年肆月日前摠攝兼通度寺金剛戒 檀重 修都監大禪師信熙 時住持禪師妙淨書寫 時在通度寺處鑑改畫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이와 같이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조선후기 통도사 불교회화의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벽화이다.

용화전 벽화에 대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지만 대광명전 벽화와 채색, 모티브, 인물의 표현, 단청의 문양 등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대광명전 벽화와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를 제작한 수화사 임한의 화풍을 따르고 있다. 임한은 18세기 전반 영축산 통도사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으로 용화전 벽화도 임한의 진두지휘 아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1756년부터 진행된 대광명전 불사에 수화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도사에서 최고의 역할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화전 벽화는 대광명전 벽화에 비해 일부 분 섬세하지 못하며, 화격이 떨어지는데 이는 대규모 불사가 진행되면서 이때까지 화업이 없는 화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거 유입되면서 대광명전 단청화원의 차화사로 등장하는 옥상과 이하의 다른 화사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광명전 중창 불사 때 수화사 임한 외 몇 명을 제외하면 이전에는 화원으로써의 기록이 없는 화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로전 불사 이후 초빙되었던 화사들은 점차 통도사에 인연을 맺고 이후 불화 조성 및 통도사 불사에 참여하는 예가 다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18세기 중엽 중로전 대불사는 새로운 화사의 등장을 보여주고 통도사의 18세기 후반 화사집단의 새로운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V. 맺음말

통도사 용화전 내부 벽화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만큼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통도사 용화전 내부는 특이한 구조로 같은 규모의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은 포벽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매우 화려하게 건물내부가 장엄되었다. 특히 내부벽에 〈서유기도〉라는 특이한 도상이 그려지면서 더욱 주목되었다. 최근 서유기 도상의 수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명대판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유기도〉는 현장의 구법행 과정과 이를 수호했던 현장 일행의 공덕

³⁷ 대표적인 화원으로 두훈(斗薰, 料薰, 料薰, 斗薰: -1755-1775-)이 있다. 두훈은 1759년 대광명전 단청화원으로 처음 통도사에 등장한 이후 1767년 〈통도사 괘불〉의 조성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수성(守性: -1759-1767-), 계징(戒澄: -1759-1801-) 등도 여러 불사에 참여하면서 통도사에서의 화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과 깨달음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자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외부벽화는 19세기 후반, 내부벽화는 <용화전 미륵후불도>(1798)가 제작된 18세기 후반이라고 단정되었다. 그러나 통도사 중로전에는 18세기 중반 대규모의 화재가 있었고 용화전 역시 중로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광명전, 문수전, 명부전과 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가 중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용화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용화전을 같이 소실되었던 건물들의 기록과 대광명전과의 비교를 통해 채색, 모티브, 인물의 표현, 단청의 문양 등이 유사함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용화전 내부벽화는 1760년 전후로 제작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외부벽화는 현재 대웅전 외부벽화와 1900년대 『조선고적도보』와의 비교를 통해 적어도 1899년 전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화전 내부벽화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같이 재건되었던 건물들과의 비교로 제작자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중로전 대불사 중 대광명전 불사에 탕화원과 단청화원의 수화사를 맡은 임한을 중심으로 하여 불사가 진행되었다. 이 중 단청화원으로 차화사인 옥상이 등장하는데, 옥상은 이전에 화업으로 <청도 대적사 극락전>(1755) 단청화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유일하지만 임한의 지휘아래 용화전 벽화제작에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통도사 중로전 중수 불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사들이 불사 이후 통도사에서 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며, 18세기 후반 통도사에 새로운 화사집단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통도사 벽화중 제작시기에 대한 연구와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_통도사(通度寺, Tongdosa-Temple), 중로전(中爐殿, The central axis), 대광명전(大光明殿, Daegwangmyeong-jeon), 용화전(龍華殿, Yongwha-jeon), 벽화(壁畵, Fresco)

■ 투고일 2017년 3월 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5일 ■

참고문헌

1. 사료

『朝鮮古蹟圖譜』

2. 동양어문헌

국립대구박물관, 『佛國土,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 사찰벽화전』, 국립대구박물관, 2006.

김정희, 「불국사 대웅전 벽화고-〈釋氏源流應化事蹟〉벽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찰벽화: 대구광역시·경상북도1』, 문화재청·성보문화재연구원, 2010.

김현수, 「조선후기 불화사 입한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남도1)』,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2008.

_____,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광역시·경상남도2)』,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2009.

_____, 『한국의 사찰벽화(대구광역시·경상북도1)』,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2010.

_____, 『한국의 사찰벽화(경상북도2)』, 문화재청·성보문화재 연구원, 2011.

박도화, 「한국 불교벽화의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박세진, 「通度寺 龍華殿 壁畫 研究」,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박일웅, 「通度寺聖寶博物館 所藏 阿彌陀後佛幀과 任閑派」, 『불교미술사학』 제4집, 2006.

朴顯主, 「通度寺 殿閣에 따른 丹青의 特性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 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신광희, 「조선후기 십육나한도상의 계승」, 『동양미술사학』 10, 2009.

_____,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신소연, 「圓覺寺址 十層石搭의 西遊記 浮彫 研究」,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2006.

신용철,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을 통해 본 통도사 가람의 변화와 의미」, 『불교미술사학』 제22집, 2016.

_____, 「通度寺 靈山殿의 歷史와 建築意匠 考察」,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

신은미, 「조선후기 십육나한도 연구 - 불보도상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제27호, 2006.

이영중, 「통도사 영산전의 『석씨원류응화사적』 벽화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50호·제251호, 2006.

_____, 「통도사 영산전의 벽화편년 재고」,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

이용운,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장희정, 「18세기 通度寺와 畫師 任閑」, 『불교미술사학』 제6집, 2008.

전경미, 「조선후기 영남지역 寺刹壁畫의 연구」, 『강좌미술사』 제26호, 2006.

차미애, 「용주사 대웅보전 내벽화의 도석인물화」, 『한국의 사찰벽화(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2006.

최민아, 「통도사 龍華殿의 〈西遊記圖〉연구」, 『문물연구』 제28호, 2015.

한국학문헌연구소, 『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79.

한정호, 「1767년 양산 통도사 괘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5, 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洪性楚, 「朝鮮時代《西遊記》의 傳播와 影響 연구 - 文獻記錄과 “西遊記圖”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56집, 2013.

국문초록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통도사에 현존하는 벽화들 중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며, 건축물의 규모에 비해 벽화의 수도 많아서 건물을 매우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특히 내부벽화에 그려진〈서유기도〉는 다른 사찰 벽화에는 그려지지 않은 특이한 도상으로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매우 주목되었다. 통도사 용화전 벽화는 18세기 통도사 불교회화의 한 부분으로 18세기 통도사 불교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용화전에 관련된 기록으로 1369년 초창과 1725년 중창에 대해『佛宗刹略史』, 『各法堂初重創記念』에 간략한 기록만 남아있다. 통도사는 1756년 용화전이 위치한 중로전에 큰 화재가 있었으며, 이 화재와 관련된 기록들을 통해 용화전의 재건시기에 대해 추정 가능하다. 또 함께 재건되었던 대광명전 벽화와 매우 유사함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이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벽화의 제작시기와 제작자에 대한 추정을 해보았다.

용화전 외부벽화는 원형을 많이 잃은 상태로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에 대한 추정은 어렵다. 그러나 1900년대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통도사 대웅전 외부벽화의〈여래도〉와 해장보각의〈호작도〉와 매우 유사하며, 용화전 또한 1899년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용화전 내부벽화는 기존에〈용화전 미륵후불도〉(1798)가 제작된 1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756년에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큰 화재가 있었고 이 화재로 인하여 법당 4곳이 전소되었다. 관련기록인〈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1759)과〈梁山通度寺文殊殿重創記〉(1757)를 통해 병자년 10월 21일에 발생한 화재로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문수전, 명부전, 용화전이 소실되었으며, 문수전의 중건을 시작으로 4법당이 1760년에 모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수전과 명부전은 현존하지 않으며, 이에 반해 대광명전과 용화전은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용화전은 대광명전과 함께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를 띠는 건물의장이 곳곳에 배치되었으며, 내부벽화는 채색, 모티프, 인물의 표현, 단청의 문양 등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적어도 대광명전 불사가 마무리되던 1760년 이전에는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벽화를 제작한 화사로는〈己卯年改金幀畫丹牖事施主記〉(1759)에 대광명전 불사와 관련된 탕화원과 단청화원이 기록되어 있다. 용화전 벽화는 대광명전 벽화와〈대광명전 삼신불도〉(1759)와의 유사성이 매우 크다. 단청화원 중 차화사로 등장하는 옥상의 화업을 살펴보면 청도 대적사 극락전 단청화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유일하지만 용화전 벽화 작업에 청도 대적사 극락전 벽화와 유사한 부분이 일부 보여 옥상은 수화사 임한의 지휘아래 용화전 벽화 제작에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18세기 통도사 중로전 불사는 대화재로 인하여 많은 건물이 소실된 만큼 큰 불사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화사들을 초청하였으며, 모인 화사들은 대광명전 불사를 계기로 통도사에서 18세기 후반에 화업을 이어간다. 이로써 대광명전 불사는 통도사 18세기 후반의 화사집단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불사작업이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 Study on Chronology and the Painter of the Wall Paintings in Yonghwa-jeon Hall, Tongdosa Temple

Park Se-Jin*

The wall paintings in Yonghwa-jeon Hall from Tongdosa Temple retain their good condition among other extant murals from the same temple. Moreover, the number of wall paintings is noticeably large when compared to the size of the shrine, which is lavishly decorated by the murals. Especially, *Journey to the West*, painted inside of the Yonghwa-jeon Hall, has received particular attention due to its peculiar iconography, which is not depicted in other temple paintings. Even though it is such an important example in the history of the Buddhist paintings in Tongdosa Temple from the eighteenth century, records related to the Yonghwa-jeon Hall-particularly regarding its initial construction in 1369 and the reconstruction in 1725-are only left briefly in “Commemoration of 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Shrines and Halls,” *Brief History of Buddhist Temples*. It was 1756 when the Central Area of the temple site (Jungno-jeon), where the Yonghwa-jeon Hall is located, was destroyed by fire. Based on written records related to the fire, it is possible to estimate when the Yonghwa-jeon Hall was reconstructed. As the style of the wall painting is very similar to that of Daegwangmyeong-jeon Hall, which was reconstructed at the same time, the present study considers when and by whom the mural was painted.

The exterior mural of the Yonghwa-jeon Hall has lost most of its original representations,

* Tongdosa Museu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date it was painted and who painted it. However, it is analogous to *Śakyamuni*, which was painted on the exterior wall of Daeung-jeon Hall, Tongdosa Temple, in the 1900s, as well as to *Tiger and Magpie*, painted in Haejangbogak Shrin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Yonghwa-jeon Hall was also restored in 1899 suggests close correlations between these paintings and the murals of the Yonghwa-jeon Hall.

The interior wall paintings in the Yonghwa-jeon Hall have been deemed to be painted around the late eighteenth century, when *Painting of Mitreya* in *Yonghwa-jeon* was produced in 1798.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the big fire in Daegwangmyeong-jeon Hall in 1756 and four other Buddhist halls were completely burned down. Written records such as “A Signboard for Daegwangmyeong-Jeon” (1759) and “Restoration Record of Munsu-jeon, Tongdosa Temple, Yangsan” (1757) reveal not only that the fire took place on October 21, 1756, and destroyed Daegwangmyeong-jeon Hall, Munsu-jeon Hall, Myeongbu-jeon Hall, and Yonghwa-jeon Hall, but also that all four buildings were restored in 1760, starting with the Munsu-jeon Hall. Even though both Munsu-jeon Hall and Myeongbu-jeon Hall no longer exist, Daegwangmyeong-jeon Hall and Yonghwa-jeon Hall have been well preserved. Talismanic decorations for preventing fire were installed in these two buildings. Interior wall paintings in the two buildings share similar color scheme, motifs, representations of figures, and patterns on dancheong, multicolored paintwork on temple buildings. These similarities lead the author to conclude that the mural in the Yonghwa-jeon Hall must have been completed before 1760, when the Daegwangmyeong-jeon Hall was built.

As for painters, “Offering Record for the Repair of Buddhist Paintings and Dancheong in 1759” preserves a list of painters for Buddhist paintings and for *dancheong*, which related to the Daegwangmyeong-jeon’s restoration. The murals from Yonghwa-jeon Hall share many similarities with the wall paintings from Daegwangmyeong-jeon, including *Painting of Buddhist Trinities* (1759). Among the painters involved in the dancheong work, Oksang (玉尙, ?-?), who participated as a second-ranked painter, is only recorded as a dancheong painter for Geungnak-jeon Hall, Daejeoksa Temple. Yet there are some similar visual representations in the wall paintings from Geungnak-jeon as compared to those of Yonghwa-jeon, which enables one to assume that he must have played a great role in painting for Yonghwa-jeon under the chief painter Imhan (任閑, ?-?)’s guidance.

Because of the big fire that destroyed many Buddhist halls and required the reconstruction of the Central Area of Tongdosa Temple in the eighteenth century, a large number of monk paint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invited to work on the temple. Since then they continued painting works at Tongdosa Temple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is implies that, therefore, the Daegwangmyeong-jeon reconstruction was such an important project, which provided an opportunity to form a group of painters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n Tongdosa Temple.